

삿포로 눈축제 - 눈축제의 역사

삿포로 눈축제는 1950 년 겨울, 중고생들이 미술 교사의 감독 하에 오도리 공원 한편에 6 개의 눈 조각상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눈축제는 편하게 눈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개썰매 경주나 스쿼어 댄스, 눈싸움, 그리고 블록을 사용한 팀 대항 눈싸움 대회도 개최되며 약 50,000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후 이벤트의 규모는 점점 커졌으며 2021·2022 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1955 년부터는 육상자위대의 대원이 눈축제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삿포로 주둔지는 자위대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방면대인 북부 방면대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1959 년에는 2,500 명의 자위대원이 대형 눈 조각상의 제작에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눈축제의 상징이 된 거대 눈 조각상의 제작은 대원들의 공학·병참 기술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2 년에는 삿포로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어 눈축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이 25m 의 신화 속 인물 걸리버 눈 조각상은 그 해 눈축제에서 사람들을 맞이해 올림픽 미디어 보도에서 언급되어 눈축제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1974 년의 눈축제는 성장의 해이기도 고난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는 국제 눈조각 콩쿠르가 처음 열린 해이며 6 개국의 팀이 참가했습니다. 콩쿠르의 참가 팀 수는 해에 따라 다르며 일본에서는 1998 년에는 20 팀, 2020 년에는 12 팀이 참가했습니다. 1974 년의 고난은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인해 트럭을 사용한 눈 반입과 압설을 위한 연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예년보다 사용할 수 있는 눈이 적어져 눈 조각상의 기초 부분에는 드럼통을 사용해 공간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눈이 적어서 예년보다 빨리 녹기 시작해 눈축제 폐막까지 붕괴할 우려도 있었습니다.

1979 년에는 일본의 전위 예술가 오카모토 다로 씨(1911~1996)가 제작한 눈 조각상 덕분에 눈축제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카모토는 1970 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를 위해 세워진 「태양의 탑」의 작가로 유명합니다.

1983 년에는 유흥가인 스스키노가, 또한 2009 년에는 동계용 유희시설 쓰도무가 행사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스스키노 행사장은 아이스월드이며, 정교한 얼음 조각상을 제작·전시해 눈축제에 얼음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쓰도무 행사장은 얼음이나 터널형 미끄럼틀 등 옥외 액티비티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액티비티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2013 년에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로 눈 조각상에 움직임과 색, 소리를 표현했으며, 2020 년에는 디지털 기술 AR(확장 현실)을 이용한 기획도 등장. 이 덕분에 방문자 수에도 현저히 증가가 보였고, 지금은 매년 200 만 명 이상이 삿포로 눈축제를 방문합니다.